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과 다릅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쾌락일 것입니다.



- ① 유용성을 초월하여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한다.
- ③ 선형적 법칙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무조건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④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타인의 다양한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2.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만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선경(仙境)을 세우고자 한다.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이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呪文)을 외우며 한울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진리에 따라 원만구족(圓滿具足)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깨닫고, 양성하며, 사용해야 한다.

<보 기>
 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나.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나 만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다. 도학과 과학을 발달시켜 영(靈)과 육(肉)을 온전히 해야 한다.
 라.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갖풀(膠)*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꺾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갖풀이 필요하겠는가!
 * 갖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가?
-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는가?

4. (가)를 주장한 중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 성(性)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理]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눌 수 있다. ○ 이(理)와 기(氣)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나)	제자: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 _____ ㉠

- ①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
- ② 실천행[行] 후에야 앎[知]이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 ③ 인간의 기질지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
- ④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발휘해야 한다.
- ⑤ 현세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5.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신 또는 자연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 또는 자연이 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과, 왜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은 동일하다.
 을: 네 의견을 철회하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너를 모욕한 자가 판단하는 대로, 또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가 바라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지 말라.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라.

- ① 갑: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
- ② 갑: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 ③ 을: 인간의 본성인 이성은 신과 자연을 인식하지 못한다.
- ④ 을: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은둔해 사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 ⑤ 갑, 을: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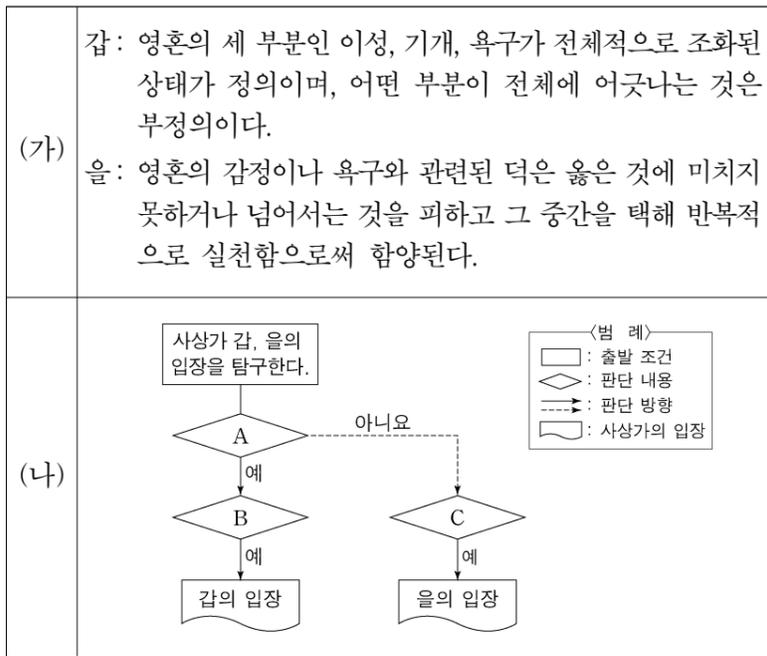
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 예(禮)는 성인이 작위[僞]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 ① 갑: 인은 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 ② 갑: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에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 ③ 을: 예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 ④ 을: 예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 ⑤ 갑, 을: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性)을 교화시킬 수 있다.

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 A: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 ㉡. A: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가?
- ㉢. B: 이성이 욕구를 지배하여 나타나는 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 ㉣. C: 어떤 경우에도 중용 상태에 이를 수 없는 행동이 있는가?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8~9]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理)요 마음의 본체이다. 경(敬)으로 주재하여 본심을 가리고 있는 사사로움과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해진다. 경은 공부하는 요령이며 성은 공부를 통해 도달해야 할 경지이니,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을: 성(誠)은 하늘의 길(天道)이요, 경(敬)은 사람의 길(人道)이다. 무릇 마음은 한결같이 몸을 주재하고, 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주재해야 한다. 스스로 노력하여 성으로 나아가려면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역시 오직 경에 힘쓸 뿐이다.

8.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 성은 마음을 집중하고 늘 깨어 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인가?
- ㉡. 경은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인가?
- ㉢. 경은 일상에서 물욕이 본심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가?
- ㉣. 성과 경은 참된 앎(良知)을 형성하여 성인에 이르는 방법인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과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릇 어린아이는 아는 것이 없지만 선하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악하다고 꾸짖으면 성내고, 도둑은 수치심이 없지만 청렴하다고 칭찬하면 기뻐하고 탐욕스럽다고 꾸짖으면 슬퍼하니, 사람의 성(性)은 기호(嗜好)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성(性)은 자연스럽게 생득적 덕을 드러내는 성향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성(性)은 인간만이 지니는 형구(形軀)의 기호일 뿐임을 모르고 있다.
- ③ 성(性)은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성(性)은 선악의 가치를 수반한 하늘의 이치(天理)임을 모르고 있다.
- ⑤ 성(性)은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임을 모르고 있다.

10.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깨끗함과 더러움[染淨]의 세계는 이미 둘 다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마음[心]이라 하는가? 이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은 것이라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어 역지로 '일심(一心)'이라 한 것이다.

을: 교(敎)를 닦으면서 관(觀)을 폐하거나 관에 치우쳐 교를 버리는 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종의 승려도 선(禪)을 닦아야 하며, 선종의 승려 역시 교리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갑: 부처의 힘으로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불 수행은 삼가야 한다.
- ② 갑: 모든 종파의 이론들을 하나인 근원에 의거하여 회통해야 한다.
- ③ 을: 능력이 출중한 자는 화두를 드는 간화선 수행을 해야 한다.
- ④ 을: 점차적인 수행을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아야[頓悟] 한다.
- ⑤ 갑, 을: 선(禪) 수행을 중심으로 하여 경전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11.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1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을: 불안에는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세상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부터 되돌려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서 드러내 보여 준다.

<보 기>

ㄱ. 갑: 윤리적 실존은 심미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ㄴ. 갑: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은 가능하다.
 ㄷ. 을: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이다.
 ㄹ. 갑, 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14.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마음의 바탕[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것이 자성(自性)의 계(戒)이고, 산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定)이며,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혜(慧)이다. 자성이 문득 깨닫고[頓悟] 문득 닦으면[頓修] 늦고 더듬이 없으므로 '일체법'을 세우지 않는다.</p> <p>을: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사물 하나하나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天理)이다. 천리를 사물 하나하나에 온전히 실현하면 사물 하나하나는 그 이(理)를 얻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p>
(나)	

<보 기>

ㄱ. A: 오온(五蘊)으로 이뤄진 '내가 영원하다'는 집착을 버려야 한다.
 ㄴ. B: 평범한 사람은 이론적 학습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ㄷ. B: 이미 마음에 각취된 이상적 인간됨을 발현해야 한다.
 ㄹ. C: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하여 천리에 도달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세속의 나라는 신의 떨시에까지 이르는 자기애를 통해서, 천상의 나라는 신을 사랑하고 자신조차도 경멸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난다.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후자는 신으로부터 영광을 찾는데, 후자가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이라는 점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을: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 ① 갑: 악은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 남용에서 비롯된 실체이다.
- ② 갑: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고 이성의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 ③ 을: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된다.
- ④ 을: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갑, 을: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至福)에 이른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현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을: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 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 ① 갑: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 ② 갑: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 ③ 을: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④ 을: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17.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 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동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① 갑: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② 갑: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적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 ③ 을: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④ 을: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⑤ 갑, 을: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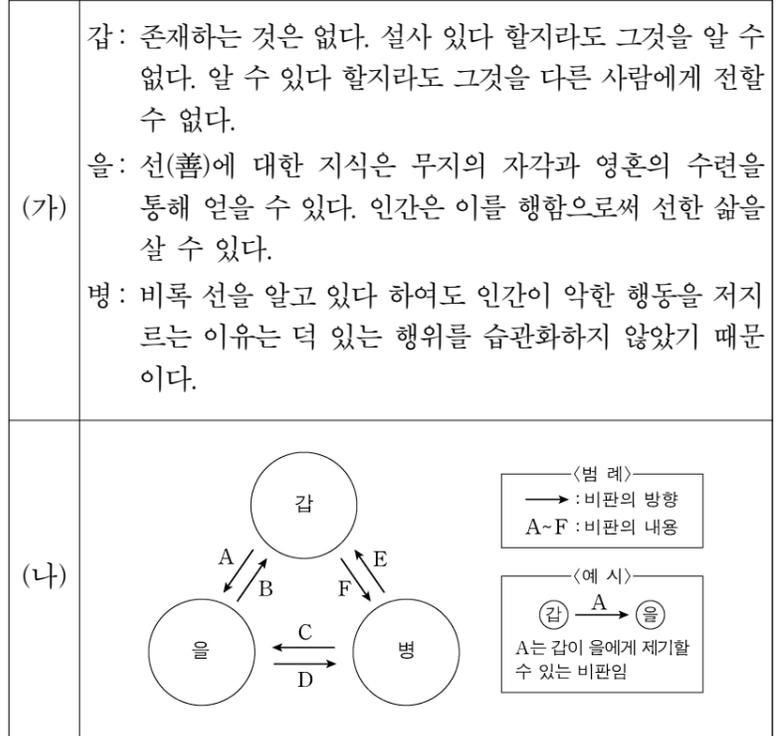
18.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인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③ 을: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 ④ 을: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 ⑤ 갑, 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 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F: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 ③ C: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 ④ D: 덕의 실천은 참된 앎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⑤ E: 선은 현실 세계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

20. 다음은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에겐 필요한 것은 완전고용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방임적 질서에서 비롯된 대량 실업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분석을 통해 효율과 자유를 보존하되 그 병폐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 경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자유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최소한의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 ① 갑: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으로만 대량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
- ② 갑: 효율을 저해하는 병폐 치유를 위해 국가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 ③ 을: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막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④ 을: 공유제와 계획경제의 법적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⑤ 갑, 을: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를 인정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